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의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95호 현대불교
2008년 9월 3일(음력 8월 4일) 수요일 / 불기 2522년
법공양 페이지

25

너를 이끌어 가는 너의 선장을 진짜로 믿어라!

마음공부를 하지 않을 것 같아

질문: 요즘 Cable TV를 보면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말이 유행입니다. 영가를 보고 영가의 말을 전해 주며 떠나지 못한 영혼을 천도까지 시켜 주어서 마치 기존의 종교에서는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해내는 능력자처럼 묘사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길을 놓치지 않고 진정 끝까지 걸어갈 수 있으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험이 되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공부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그런 고통과 경계와 왔을때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택하지 자기를 밝히는 이 공부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은사 스님이 만행과 막내. 이렇게 제자 둘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도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우리 아들 두 형제가 일 주일 장이 설 때마다 보파리 집을 해 가지고 물건을 사 가지고 물건을 팔러 나갔는데 꿈을 꾸니까 불에 타서 죽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들 좀 살려 주십시오." 하니 스님이 있다 하시는 소리가 "그건 자기가 생각하기에 달렸지." 이렇게 말을 해 버리고 말았다 이겁니다. 말제자가 생각을 하니 '저 스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미거한 저 중생은 어떡하면 좋을까. 근기에 따라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자는 아주 대도의 근기가 충만한 사람이라야만 저 소리를 알아들을 테니 저자를 어떡하면 좋을까.' 하고 근심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보살이 또 와서 말행 스님한테도 청을 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걸 도저히 모르겠으니 스님,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하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있다 하시는 소리가 '당신이 밤에 물을 동이 둥이 떠다 놓고 울타리를 돌아가면서 밤새도록 냇이 울 때까지 술 이파리로 물을 축이라'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울타리를 할 때에 술 이파리나 이런 걸로다가 전부 다 울타리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또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깐 막내 스님한테 가서 또 물었다 이겁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이 불에 타 죽지를 않고 산다고 하셨는데도 저희 마음에는 아주 그냥 이렇게 안타깝고 죽겠습니다." 하니 막내 스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뭐가 그렇게 원통해서 그래?" 하면서 반말로 죽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상에다 잘 차려 놓고 제사를

지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 스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릅니까, 전부 똑같은 겁니까? 대답 좀 해 보십시오.

그렇겠지요. 근기에 따라서니까, 일러 줘도 모르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거? 아까 그 세 스님이 말씀하신 거, 그걸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으로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근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또 근기에 따라서 그렇게 일러 줘는데도 그것도 모자라서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상을 차려서 시식을 지내는 사람하고 그렇게 물을 뿌리는 거하고, 그것도 죽고 사는 건 생각에 따라서 있다 했으면 그게 퍼뜩퍼뜩 알아져야 하는데 말입니다. 또는 벽도 없고 문도 없어요.

항상 여러분 앞에 '마음은 채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은 채가 없어서...' 하는 말이 그게 뜻이 얼마나 깊고 여러분한테 이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말 자체의 뜻을 한테다 떨어트린다면 여러분은 한생각에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도라는 것이 이루는 것만 도가 아니라 능

력을 기르면 내가 용(用)을 하는 건 그냥 그대로 스스로 부수적으로 오는 겁니다. 용을 일부터 배우려고 애를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생각하면 움직여지는 것이 용인데 뭐 그렇게 용을 따로 배우는 겁니까?

그래서 그분은 시식을 지내라고 하니깐 그 가운데 있는 분이 가난하긴 하고 참 너무나 안타까워서 불레 불렀습니다. 불레 불려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그러면 아들이 살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하니깐 그렇게 해서 이제 밤새도록 소나무를 뿌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옷감을 사 가지고 가서 팔 양으로 여관엘 들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주막에 들었는데, 주막에 불이 난 겁니다. 피곤하니깐 그냥 잠이 들어서 자는데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면서 그냥 물을 끼얹으니깐 팔짝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불이 그냥 뺨 돌아서, 그래서 보파리 들고 그냥 막 뛰어나와 가지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으면 잘했다고 해야 할 텐데 은사 스님이 불려다가 얼마나 패 줬는지 몰라

요, 은사 스님이.

"이놈아!" 그거를 왜 가르쳐 줬느냐 이거죠. 네가 그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세세 생생에 그러한 짓만 하고선, 네가 잘못 가르쳐서 그걸로만 갈 테니,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를 할 수 있게끔 길을 인도할 텐데 지금 만약에 그 아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너는 잘못 가르쳤다고 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아, 이걸 방망이로다가 그저 막 때는 겁니다. 그래서 디굴디굴 구르다가 이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울지 울지, 알았다. 스님이 방망이로 때리는 게 아니라 아이구, 이런 거를 가르쳐주시는구나." 하고선 알았다고 하늘을 보고 웃고 그냥 막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깐 그 은사 스님이 있다 하는 소리가 "이제는 알았더니 됐다." 그러는데 동생 하나는 "흥, 들이 잘 노는군." 이라고선, 그냥 자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런다고 그냥 픽 돌아서서 훌쩍 가거든요. 가니까 은사 스님이 또 하는 소리가 "아, 이놈아 어디로 가느냐? 지금 마당이 더러워서 죽겠는데 마당을 쓸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이놈." 하고 악을 쓰니까 "쓸 거

예요!" 그러고선 그냥 가져거든요.

그런데 그 스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좋아 했을까요? 그거를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멍둥이로 막 뻗는데, 막 찢기고 그러면서 내리구르다가 "아이구, 알았다." 고 그랬는데 뭐를 알았다고 그랬을까요. 그렇게 뭘 알았다고 했을까 하는 거를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이론으로만 배워서서 아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자유스럽게 침단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공부 하시는 데에 학술적으로나 경을 보시는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아주 거론이 많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선의 도리는, 선법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포함해서 돌아가면서도 '무(無) 예요. 없고 없고 또 없어요. 그 없고 없고 또 없는 데서 무엇을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힛트를 주기를 공했다, 참나생활이다, 한 철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은 마음 하나 잘 먹으면 한생각에 뛰어넘어지고, 마음 하나 잘못 쓰면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이렇게 가죠. 나라는 조건을 버린다면 천야만야한 남퍼러지도 밟을 수 있는 겁니다. 밟고 밟을 수 있어요. 그 아래는 송장의 뼈다귀가, 해골이 수도룩하게 있어도, 떨어져서 죽은 송장들이, 해골바가지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로 믿는다면 내 몸뚱이가 산산조각이 난다 하더라도 그 발자국을 때어 놓을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으려면

질문: 얼마 전 친척 중의 한 분이 몇 년을 산소 호흡기로 전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 임종의 순간 아프지 않고 편안한 모습으로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려면 떠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할지요?

답변: 여러분이 왜 몸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몸을 벗어야만 합니까. 여러분이 그 조절을 잘못하기 때문에 대표인이 못되고, 선장이 못되고, 나침반이 틀리니까 결국은 이 속에서 소인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없는 자식들이 얼마나 갈 바를 모르고 길을 헤매고 고아가 돼서 헤

26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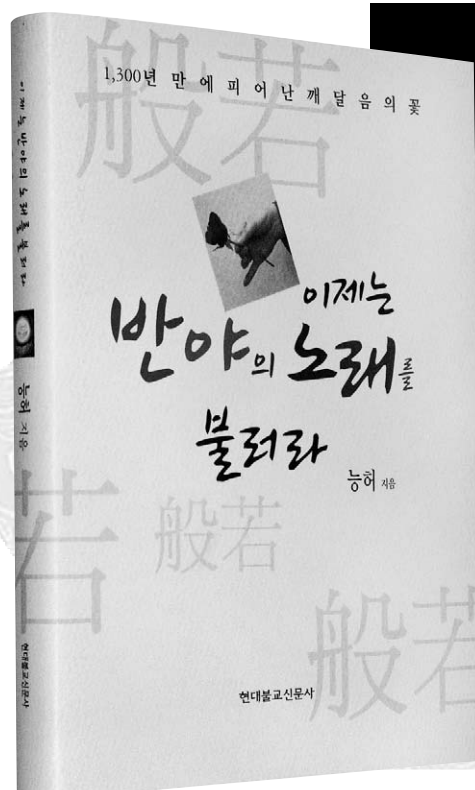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 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1737-0695

"덕산탁발화(德山托鉢話)와 파자소암(波子燒庵)의 두 공안을 다 통과했으니 내가 인가를 안할 수가 없어 눈 밝은 사람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당당한 대장부라네. 자네는 제가자로서 1,300년 만에 확철대오의 꽃을 피운 것이네"

- 정일대선사

바라밀선원장(능허)의 구도여정 그리고 깨달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 까닭은?



능허(能虛)거사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양장본 / 238쪽 / 값 12,000원

바라밀선원 전화 055)314-0116.8

1,300년 만에 피어난 깨달음의 꽃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

불교의 전면목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 있으며
배움이 아니라 배울 수 없음에 있으며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칠 수 없음에 있으며
언어 문자가 아니라 언어 문자가 끊어짐에 있으며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 있으며 말이 아니라 깨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는, 불법은 생각이나 분별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겹겹 성불한 부처만이 알 수 있음을 설했던 것입니다.
모든 부처와 조사가 한 법도 사람에게 주심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중요요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긍정하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할 뿐입니다.

- 법문 중에서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낙엽 하나가 내 발 앞에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었다.
큰스님께서 "보려고 하면 힘들다"고 하신 뜻이 하나로 통해지면서
눈길에 별령 누워버렸다. 밤하늘 밝은 달을 쳐다보니 고향땅에 도착한 것이
분명했다. 온몸에 맑이 흘러도 모르고 있다가, 찬바람에 맑이 식어지자
추위가 닥쳐왔다. 그제서야 변혁 정신이 들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는 천하에 부처님과 조사들도 나를 두 번 다시 속일 수 없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힘차게 소리를 질렀다.
"조주여! 천 년 사람살이 오늘 나에게 들켜 버렸구나!"

- 본문 중에서